



보도시점 2026. 8. 28.(금) 17:30 배포 2026. 8. 28.(금) 06:00

농식품부 차관, 공동영농 및 스마트 APC 현장 점검

- 규모화된 농지 기반의 전문경영을 통해 소득 극대화를 추진하는 공동영농 법인 격려
- 스마트 APC 현장 방문하여 AI 선별기 등 점검하고 관계자 간담회 개최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8월 28일(금), 경상북도 경주시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 대청과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주 농산물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공동영농’은 농업법인이 임대·출자 등을 통해 농지를 집적하고, 농가는 법인의 전문 경영에 참여하여 소득을 극대화하는 모델이다. 이를 통해 법인과 참여 농가가 모두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한 구조이다.

김종구 차관은 영농조합법인 대청*의 공동영농(28명 참여, 약 90ha 규모) 들녘 현장에 찾아가 손재익 대표로부터 사업추진 상황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고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생산비 상승, 영세한 농지규모 등 농업 현장의 어려운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영농은 꼭 필요하다”라며,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6년 농식품부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기계 및 보관창고 설치 계획

농식품부는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차관이 주재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영농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농지 규모화와 이용 효율화를 위해 대상 품목에 벼 포함, 면적 기준 상향(20ha → 50ha), 농지이용증진사업 연계, 수익분배 모델 구체화 등 공동영농이 원활히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2027년부터 사업 규모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방문한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는 AI 토마토 선별기, 멜론 출하 과정 등 농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경주시농협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 경주시 관내 8개소 조합과 함께 정부의 산지 유통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스마트 APC는 상품화 공정 자동화 장비·설비 도입으로 산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선별 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선별과 품질관리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과 산지의 유통 교섭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 APC를 산지유통의 핵심 거점으로 하여 농산물 유통 전 과정을 디지털화·데이터화하고자 현재 115개인 스마트 APC를 '30년까지 30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두 현장을 둘러본 후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공동영농과 스마트APC를 중심으로 산지 규모화·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유통 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식량정책관	책임자	과 장	허동웅 (044-201-1831)
		담당자	사무관	홍성욱 (044-201-1835)
	유통소비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은영 (044-201-2211)
		담당자	주무관	홍지민 (044-201-2224)